

# 순정이

주의 공헌 대축일

제1독서: 이사 60, 1-6

제2독서: 에페3, 2-3a, 5-6

복음: 마태 2, 1-12

“그들은 아기를 보고 경배하며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2, 11).

•1992년 1월 1일 - 제25회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 “평화를 이루며 일치하는 종교인들”

이 세계 평화의 날이 시작된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반세기가 지난 다음 이 시대 전반을 돌아보며 세계 평화의 대의가 참으로 진보하였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최근 수개월 동안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실질적인 퇴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가늠해보며, 인간 이성이 그 스스로 파괴적인 이기심과 전도된 증오심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인가를 밝히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민주정치의 진보적인 발흥은 모든 민족들에게 희망을 돌려주었으며,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평화의 시대를 가늠케 하였습니니다.

한 집단이든 개인이든, 종교인들이 평화의 일꾼이 되고 평화의 사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평화에 대한 투신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바로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투신은 특별히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며, 이는 더더구나 “평화의 왕”(이사9, 5)을 지도자요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평화를 향한 갈망은 인간 본성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그 갈망은 여러 종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은 질서와 평온을 바라는 염원에서, 남을 도와주려는 자세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참여에서 드러납니다. 자연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또 세계 종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발전시키려면 모든 사람들 곧 정치가들, 국제기구 지도자들, 기업인들과 노동자들, 여러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이 가치들을 지지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엄정한 의무입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인이라면 그 의무는 더욱 무겁습니다. 평화를 증거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게도 당연한 종교행위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다섯 해 전에 여러 대륙에서 온 주요 종교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아씨시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평화의 보편적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모임은 또한 평화는 노련한 정치 외교적 협상이나 경제적 이해 절충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전인류의 발길을 이끌어나가는 분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함께 모여 단식하며, 전세계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수천만의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을 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량에 의존하기 이전에 저는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평화의 거처가 되게 하자면 열렬하고도 겸허하며 신뢰에 찬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저 평화를 영원하고 평화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자신의 처지에서 온갖 가능성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는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과 만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상호 존중과 이해,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톨릭교회는 자기 고유의 정체성과 교리 그리고 전인류를 위한 자신의 구원 사명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가운데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없는 존경으로 살펴봅니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진리를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2항).

종교간의 차이를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는 평화 증진에 있어서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유익하게 발전시키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나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인격적인  
표양으로써 그러하여야 합니다.  
내면의 자세는 밖으로 일관된  
치신과 행동을 드러내게 합니다.**

교회간의 일치 대화와 더불어 종교간의 만남은 이제의 목적으로 따라 걸어야 할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수세기를 내려오며 입게 된 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참으로 빨리 치유되도록 이러한 대화와 만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인격적인 표양으로써 그러하여야 합니다. 내면의 자세는 밖으로 일관된 치신과 행동을 드러내게 합니다. 평정, 균형과 자제 그리고 이해, 용서와 관용의 행동은 주변 환경과 종교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기도와 공동활동은 개인과 민족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그 정당한 열망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평화는 인간의 근본 가치를 존중하고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근본 선입니다. 그 가치들이란 곧 인간 생명의 모든 발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생명의 권리, 인종과 성별과 종교적 신념의 차별없이 존중을 받을 권리, 생존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얻을 권리, 노동의 권리와 질서 정연한 화합의 공존을 위한 노동 결실의 공정 분배에 대한 권리입니다. 개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더욱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정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정의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태22,39)는 사랑의 최고법으로 그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도자들과 국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언제나 모든 인간의 종교적 양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십시오. 저는 공공 당국에 거듭 촉구합니다.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과 분쟁을 방지하도록 진력하십시오. 정의와 인권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팔고루 혜택을 받는 발전, 빈곤과 기아와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입는 그러한 개발을 추구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당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공동 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평화의 복음”(에페 6,15)에 대한 일치된 증거를 하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더불어 용기와 인내로써 평화 건설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함께 이룩해내야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평화를 성취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요한 14,27).

가톨릭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교적·도덕적 가치를 비롯하여 근본 가치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는 현대 세계의 엄청난 도전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평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더불어 평화를 함께 이룩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바티칸에서, 1991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숲정이 산책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92학년도 유치부 원아 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53-1411  
효자(삼천동쌍용APT앞)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인젤라)

살아 있는 물  
'천연 광천수'를 마시자  
사업자등록번호405-81-02459  
**가나안 생수**  
대표: 주원배(실베스텔)  
주준석(분도)  
87-6564, 88-7948

**파랑새 속셈학원**  
유치부,국교부,중등부 개별지도  
원장 김보경(테레사)  
광진목화아파트 사거리 소협3층  
224-3036

잡 관 /

“평화 그러나 어디?”

지금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9일 소련의 군부 구테타 실패 후, 적어도 외관상으로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우려이기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세계의 단일 지배 체제로 자리잡아 가는 듯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사회주의의 몰락은 마르크스주의의 경직화와 교조주의화 그리고 폐쇄적인데 있겠지만, 그 이론이나 사상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훌륭하다 해도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가를 무시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예로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전후해서 희생된 사람이 2,000만명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1929년-1932년 사이에 실시된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농민만도 1,000만명이 희생된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상(表象)하는 자본주의 역시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 자유무역 제국주의와 기술 제국주의로 인한 종속 경제, 독점 자본주의의 부패성, 이로 인한 억압과 착취,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소외,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각종 공해와 퇴폐산업의 범람은 인간을 타락 시키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최근 동구권의 변화와 소련의 붕괴, 자본주의의 횡포와 타락을 보면서, 평화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나누는데 있음을 알자.

새해 첫날 “종교적·도덕적 가치를 비롯하여 근본 가치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는 현대 세계의 엄청난 도전에 응답해야 합니다”고 하시는 교황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복음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의 정신으로 온 누리에 평화를 심자.

교 구 소 식

※ 1992도 예비 신학생 모임 : 1월12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참사회 : 1월7일(화) 오전10시 교구청.
2. 초등부 복사단 교육 : 1월8일-10일 가톨릭센터.
3. 중교 전례부원 연수 : 1월11일-12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중교생 전례해설자 및 복사단.
4. 꾸르실료 교육 : 1월9일-12일 천호 피정의 집.
5. '사랑의 다리' 신년미사 : 1월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6. 시청각 통신성서교육 안내[신구약성서 입문과정(2년)] : 구비서류-입학원서, 증명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1월1일~2월10일까지, 문의 (0652)252-3398.
7.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신입생 모집 : 기간-2년, 구비서류-입학원서, 사진3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서교부-1월6일~25일, 문의(02)745-8339.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 1월12일 오후1시 본원 (0652)84-3231.  
 살트르 성마로수녀회 : 1월12일 오후2시 숲정이 성당 수녀원(0652)252-9567.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1월12일 오후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0652)84-227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새 것을 사기 전에

새 것을 사기 전에 집안의 낡은 물건을 살펴봅시다. 더 많이 재사용할수록 새 것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처분키 위해 낭비되는 자원이 절약됩니다.

전자제품판매 및 수리  
전기재료·조명등 일괄  
**성심 종합 전자**  
이갑춘(안토너오)  
전현자(울 리 아)  
신동아파트 정문 앞  
☎ (0653)52-3800

**현대 컴퓨터 전북 총판**  
(태평양 수영장 1층)  
김 중 희(빈첸시오)  
윤 영 숙(엘리사벳)  
☎ 74-0089, 0090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수녀화  
아동화·특수화  
총판매장(공정직영)  
김 문 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촌간·송악국 시거리

**요심이** (961) 김병오



로마·예루살렘을 집중 순례, 형제 자매님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순례 기간 : 9박10일  
 출발 일자 : 1차 1월1일, 2차 1월 8일, 3차 1월15일, 4차 1월22일  
 (株)世湖航空旅行社  
 全州支店長 張 興 成(요셉)  
 ☎ (0652)82-6532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 민 구(프란치스코)  
유 해 미(마 리 아)  
효자동 한양 온남아파트상가  
☎ 224-1696

행사용/기념품/편촉물/  
상패/실크인쇄  
간판/네온사인/실내장식/  
니염/플래카드  
종합광고물 제작업체  
**무지개광고기획**  
대표 김 창 식(스테파노)  
(도 교육위원회 옆)  
☎ (0652)252-0207, 252-0208  
FAX 252-0207  
P.P 012-681-0898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1.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2. 부녀회 임원회: 8일 어머니미사 후 3. 섬시간: 9일 오후 7시  
4. 울뜨레야: 오늘 저녁 7시 30분 5. 자모회: 7일 어머니미사후  
6. 부녀회 임원명단-회장: 이홍자(그레센시아), 수석부회장: 서문일순(아가다), 부회장: 김귀례(수산나), 총무: 황의순(세시리아), 서기: 박은순(유리안나), 회계: 진경숙(요안나)  
7. 자모회 임원명단-회장: 최선자(쁘리나), 부회장: 최은남(세시리아), 총무: 송순이(엘리사벳), 회계: 이병림(빅토리아), 중·고부장: 김경자(테레사), 초등부장: 박영숙(안나)  
8. 차주침소: 중노2가 16, 17번 금주침소: 중노2가 14,15번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회합:** ①사목회: 저녁미사 후 ②대건회: 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 7일 오전 10시 ④안나회: 9일 오전 10시 ⑤성체강복: 9일 밤 11시 ⑥요셉회: 12일 공식미사 후 ⑦여성분과회: 11일 오전 10시 ⑧꾸리아: 12일 오후 2시 ⑨청년회: 12일 저녁미사 후

"축" 결혼(12일) 신랑-김 미카엘균 신부-윤혜라나야.  
성당침소(11일): 구세주의 모친 pr. 일치의 모후 pr.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신태섭씨 가족  
차주전례: 최육남, 독서-송철수씨 부부, 봉헌-정승관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오늘은 주의공현 대축일입니다.**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3. 성서읽기: 요한 I 서 전체
4. 금주침소: 성실하신 동정녀 pr
5.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시도, ②강경자, 봉헌-여정진, 이육동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남현준, ②이석남, 봉헌-성대직, 이명수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주의공현 대축일**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자모회-1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④사목회-1월 8일(수) 저녁미사 후 ⑤성심회-1월 13일(월) 오후 2시 ⑥프란치스코 3회-다음주일 오후 2시(1월 12일)
2. 알림: 초등부 복사단 교육-1월 9일(목) 가톨릭센터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 영성체 교리: 1월 7일 오후 2시부터(대상: 3학년 이상 어린이)
3. 자모회: 10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중·고생을위한 성서연수: 11일(토) 오후 4시
5. 침소봉사: 신촌주택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92년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축복을 빕니다.

1. 구역봉사자 모임: 금일 저녁 7시
2. 재속 글라라 협제회: 금일 오후 1시 30분
3. 구역장 반장모임: 6일 오전 11시
4. 돈보스코회: 8일 저녁 7시 30분
5. 유아세례: 11일(토) 오후 3시
6. 사목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7. 자모회: 다음 주일 오전 10시
8. 반미사: 7일 동교 6반, 8일 중앙동, 9일 남노2반, 10일 동완산동5반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구

※ 92년도 교무금 카드 및 신축헌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역 반회장 연수: 7일 오전 10시 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2. 남성 제40차 꾸르실료 김습회: 9일~11일 서정회, 권학렬
3. 제대회 월레미사: 10일 오후 3시,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4. 중·고전례부원 연수: 11일~12일 화산 나바위 교육관
5. 복사단 연수회: 9일 가톨릭센터
6. 임원개편: 부녀회장-최정자, 부회장-송규순, 주경순, 회계-이금남, 서기-송옥자, 성모회장-문점숙, 부회장-김복희, 서기-은희영, 회계-김생금, 제대회장-박혜정, 부회장-한혜자, 서기-박연희, 회계-문정숙, \* 구임원께 감사, 신임원 수고하세요
7. 회의: 꾸리아-5일 오후 2시 30분, 자모회-8일 어머니미사후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 새해의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머무시도록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반장 월례회: 7일(화) 오후 8시
3. 성모회·청년회: 다음 주일미사 후
4. 초중고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사무실에 문의 해 주세요.)
5. 금주전례: 김용무, 독서-봉헌-권미숙·구양수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최정순·정병렬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이 효자가족들에게...**  
축! 주의공현 대축일

1. 국교생 집중교리(첫 영성체): 1월 7일~1월 18일
2. 남성 꾸르실료 37차 교육: 선기경, 유정호
3. 모임안내: ①안나회-오늘 11시 미사후 ②울뜨레야-다음주 12시, ③글라라회-수 10:30
4. 성전복구에 참여 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계속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91년도 교무금 완납마라고 신년도 교무금 신입합니다(20% 인상요)
5.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레지오 연차친목회 성황리에 마칩.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꾸리아-공식미사 후
3. 제대회: 6일(월) 9시미사 후
4. 성모회, 자모회 정기총회: 6일(월) 9시미사 후
5. 공소미사: 10일(금) 오후 2시 독배, 저녁: 이서
6. 학생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성인교리-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30, 주일: 오전 9시, 차주모임-울뜨레야  
금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송대식, ②윤길영, 기도-①채의병, ②장육선  
차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최승욱, ②강정연, 기도-①고영표, ②박춘화